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예수 성심 성월 · 성령 강림 대축일
제34권 28호(가해) 2014·6·8

[묵상]



우리에게
오신
성령께
용서와
화해를
실천할
은총을
청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나의 하느님은 나를 기다려주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시며,
나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가슴 저리게 체험한 순간,
평평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어 소리 내어 울고 말았습니다.
항상 내 곁에 계시고,
항상 나를 위해서 기도하며 기다려주시는 그 주님을,
나의 하느님으로 체험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일생을 통해서 가장 소중한 체험이요,
가장 가슴 뜨거운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지식으로 알고 있는 하느님과,
내가 내 삶의 반성과 정화의 과정을 통해서
내 삶 깊숙이 들어와 계신 하느님을
체험으로 알게 된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당신을 잊고 살아온 그 많은 시간들,
당신에게서 자유로워지겠다며 열변을 토했던 어리석음들,
그리고 세상의 술한 유혹에서 나를 도와달라는 주문은
우리들이 하느님께만 드릴 수 있는 청구서의 내용일 것입니다.

지금도 이 모든 깨달음이
우리들과 함께 계시는 성령을 통해서 이뤄진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들이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 것도 당신의 뜻을 헤아릴 수 없고,
당신의 뜻이 원하는 것을 행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

petrus3@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월요일	새벽 미사	오전 6:30
화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레지오 마리아	오후 8:00
목요일	성시간(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울뜨레아(4째주)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렉시오 디비나) 소년 레지오 마리아 M.E. Sharing(3째주)	오전 9:30 오후 6:00 오후 7:00
토요일	제대회 모임(첫토요일) 유아세례(작수달 4째토요일) 배론청년회 모임	오전 10:00 오후 6:00 특전미사후
주일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떼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오전 9:30 ● 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대건회/ 오후 1:00 ● 꾸리아 오후 1:45 3째주 - 모임의 날 ● 요셉회 오후 1:00 4째주 - 사목회 오후 1:00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 ※ 교해성사 : 미사 3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30분

주임신부 : 오창근 베드로 (310)326-4350 Ext.106
전교수녀 : 오향숙 마우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연)
특전미사	(생)최보나 보나
주 일 낮미사	(연)이정용 야고보,이윤조 클라라, 이명자 로사, 고준희 제임스, 전시웅 요한, 김성용 방지거
	(생)조윤채 요셉, 김기준 안젤라, 강지은 안젤라, 김상근 바오로 & 김여희 마리안나 가정, 정열모 미카엘 & 정미영 미카엘라 가정, 김병태 요셉 & 김정희 마리아 가정, 박진수 스테파노 & 박혜경 레나타 가정, 백지자 세레나, 이근모 마리노 & 이행자 리드비나, 김향규 모니카 & 남택영 바오로 가정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사도행전(the Acts of the Apostles) 2,1-11

화답송 ○주님, 당신 숨을 보내시어,
온 누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당신숨을 보내시-어, 온누리의얼굴을 새롭게 하 소 서.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 하느님, 당신은 참으로 위대하시옵니다.
주님, 당신 업적 얼마나 많사옵니까!
은 세상은 당신이 지으신 것으로 가득하옵니다.○
○당신이 그들의 숨을 거두시면, 죽어서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당신이 숨을 보내시면 그들은
창조되고, 온 누리의 얼굴이 새로워지나이다.○
○주님의 영광은 영원하리라. 주님은 당신이 이루신
일을 기뻐하시리라. 내 노래 그분 마음에 들었으면!
나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리라.○

제 2독서 고린토 1서(1 Corinthians) 12,3-7.12-13

부속가 성령송가 <주보 3면 참조>

복 음 ○알렐루야.
환호송 ○오소서, 성령님. 저희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저희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복 음 요한(John) 20,19-23

영성체송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하느님의 위업을 선포하였네. 알렐루야.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입당	315(1,2절)	315	317
봉헌	We Fall Down	317	261
성체	Purify My Heart	298	309
파견	315(3,4절)	312	312

올바른 성모신심

제5장 올바른 성모 공경

부록 2

성모 찬미가 '아카티스토스' <1335-1348>

(이 찬미가는 원문에 충실히 번역하였기에 기도문으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13(13번에서 계속) “기뻐하십시오. 한 송이의 완벽한 꽃이시여,
기뻐하십시오. 정결의 화관이시여.

기뻐하십시오. 당신은 앞서 선언한 부활을
더욱 빛나게 하십니다.

기뻐하십시오. 천사들의 삶의 신비를 알려 주십니다.

기뻐하십시오. 풍성한 열매를 맺은 나무시여.

기뻐하십시오. 믿는 이들의 풍요로운 음식이시여.

기뻐하십시오. 잘못하는 이들을 인도하시는 분을
당신 태중에 모시었습니다.

기뻐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에게

휴식처인 그들을 만들어 주시는 나무시여.

기뻐하십시오. 당신은 노예들을 속량(贖良)하시는 분을
양으셨습니다.

기뻐하십시오. 정의로운 심판관에게 드러지는 호소이시여.

기뻐하십시오. 많은 죄인들의 용서이시여.기뻐하십시오.

혈벗은 사람의 의복이시여.

기뻐하십시오. 진실한 말씀이시여.

기뻐하십시오. 모든 격정을 이기시는 사랑이시여.

기뻐하십시오. 동정녀시여, 신부시여!”

14 것처럼 놀라운 출산에 감탄하며

우리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끌어내어

하늘을 향하여 생각을 펼치게 하십니다.

이 땅 위에 그 높이신 분의 겸손하심과 선하심을 펼치십니다.

높은 파도에서 당신께 찬미하는 사람들을 인도하십니다.

알렐루야!

15 여기 이 땅에 다 담을 수 없는 말씀이 온전히 계셨습니다.

하늘에 부채함 없이. 장소를 바꾸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느님의 낮추심이었습니다.

자신 안에 하느님을 맞아들인

동정녀의 아드님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 동정녀에게 환호합니다.

“기뻐하십시오. 한계 없으신 하느님의 한계시여.

기뻐하십시오. 거룩한 신비의 문이시여.기뻐하십시오.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려운 가르침이시여.

기뻐하십시오. 믿는 이들에게 분명한 영광이시여.

기뻐하십시오. 커롭보다 위에 계시는 분의

지극히 거룩한 수레시여.

기뻐하십시오. 사람보다 뛰어나신 분의 찬란한 거처시여.

<◆계속>

오소서 성령이여

인생이라는 것이 따지고 보면 별거 아닙니다. 생로병사(生老病死), 낳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 그것이 인생입니다.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를 기다리던 아이들이 치킨집 할아버지를 더 반기게 되고, 학창시절에 우정을 다짐하던 친구들도 다 잃어버리고, 연애시절 뜨겁던 사랑도 식어 버리고, 자식들은 제 짝 찾아 떠나고, 외로움에 지치자 온갖 집요한 병들이 친구하자고 조르고, 남은 것은 허무한 죽음뿐인 것, 그것이 인생 아닙니까?

이런 생각에 무의미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다가, 어느날 갑자기 너무나 뜻밖에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고, 그의 사랑을 받게 되면 인생은 참만한 아름다움으로, 새로운 희망으로 돌변합니다. 미지근한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고, 고목나무 같던 가슴에 푸른 잎이 돋고, 노란색 꽃들이 피어납니다. 이렇듯이 사람을 뜨겁게 만들고, 적극적인 삶을 살도록 변화시키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다른 이름으로서, 우리를 뜨겁게 변화시키고, 온전히 차지하고, 사랑으로 이끄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성령은 소란한 사람이나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는 사람에게 찾아오시지는 않습니다. 성령은 성령을 받을 준비가 된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성령은 고독한 사람에게, 침묵하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고독과 침묵과 기도, 이 세 가지가 성령을 받기 위해 필요한 준비입니다.

고독은 단순히 홀로 있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침묵은 그저 말없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힘든 대화라기보다는 하나님 안에서의 휴식을 뜻합니다. 고독은 욕심 많고 거짓되며 분노에 차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신으로 변형되는 용광로입니다. 고

은 자신과 남을 향한 용서를 만들어 냅니다. 침묵은 고독의 조건입니다. 말 많고 말뿐인 세상에서 벗어나 말의 본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침묵입니다. 그곳으로 가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을 배웁니다.

기도는 고독과 침묵을 통해 얻은 용서의 마음으로, 하나님 안에 자신을 내 맡기고 쉬는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평화가 우리 안에 시작됩니다. 부디 우리도 고독한 사람이 됩시다. 침묵하는 사람이 됩시다. 기도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리하여 성령을 받으십시오. 미지근한 삶을 떨쳐 버립시다. 성령을 받음으로써 확고하고도 뜨거운 믿음으로 순교까지도 감수하는 적극적인 사랑을 살아갑시다.

“오소서 성령이여, 믿는 이들의 마음을 충만케 하시며 그들 안에 사랑의 불을 놓으소서.”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되어 새사람으로 살아입어야 합니다.”(에페 4,23-24 참조)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입니다.”(갈라 5,22)

◆고찬근 신부 / 서울대교구 명동대성당 주임

성령송가 : 부 속 가

오소서, 성령님. 주님의 빛, 그 빛살을 하늘에서 내리소서./ 가난한 이 아버지, 오소서 은총 주님, 오소서 마음의 빛./ 가장 좋은 위로자, 영혼의 기쁜 손님, 저희 생기 돋우소서./ 일할 때에 휴식을, 무더위에 시원함을, 슬플 때에 위로를./ 영원하신 행복의 빛, 저희 마음 깊은 곳을 가득하게 채우소서./ 주님 도움 없으시면, 저희 삶의 그 모든 것, 해로운 것뿐이리라./ 허물들은 씻어 주고, 메마른 땅 물 주시고, 병든 것을 고치소서./ 굳은 마음 풀어 주고, 차디찬 맘 데우시고, 빗나간 길 바로소서./ 성령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이들에게, 성령칠은 베푸소서./ 덕행공로 쌓게 하고, 구원의 문 활짝 열어, 영원 복락 주옵소서.

이번주 전례봉사가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조병준 플로렌시오	이호미 엘리사벳	남성철 베네딕도
제1독서자	이범주 다니엘	이민상 사도요한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곽수민 히메리오	이순자 비비안나	정명모 마리아
제물봉헌자			P.V. 1반

다음주 전례봉사가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이범주 다니엘	정광미 프란치스카	이재용 안드레아
제1독서자	조병준 플로렌시오	박진수 스테파노	유철희 바오로
제2독서자	곽수민 히메리오	박혜경 레나타	유현자 안나
제물봉헌자			토런스동 2,3반 요셉회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성령 강림
대 축 일**

오늘 (6월8일)은 '성령 강림 대축일'입니다. '성령 강림 대축일'은 성령께서 오순절에 사도들에게 강림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로서, 신약의 새로운 백성인 교회가 탄생한 날입니다.

- ◆ "강동욱 세례자 요한 신부님 환영합니다."
 - 인디아나폴리스 성 마인라드 신학교에서 교수요원으로 공부중이신 강동욱 세례자 요한 신부님(부산교구)께서 여름 방학을 맞아 백삼위 본당에 오셔서 오는 8월중순까지 사목협조를 하십니다.
- ◆ 레지오마리에 '성실하신 동정녀' 프레시디움 창단
 - 일시 : 6월12일(목) 오전 10시, 성당 2층 Room 8
 - 주최시간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 단원 : 8명, 단장 : 김정희 마리아(모체pr. 신비로운 장미)
 - 레지오단원으로 봉사하고 싶은 분의 참여 바랍니다.
- ◆ 주일학교 / 한국학교 종강 및 시상식
 - 주일학교 : 6월15일(주일) 학생미사 중 각 학년별 우수상, 모범상, 개근상 수여. 미사후 수업있음
 - 한국학교 : 6월15일(주일) 오후 1시30분 강당 우수학생들에게 우수상, 모범상, 개근상 시상
- ◆ 요셉회 정기총회
 - 일시 : 6월15일(주일) 낮미사후 강당
 - 총회가 끝난후 친교장에서 BBQ 파티가 있습니다. 회원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 124위 한국순교자 시복식 참가단 모집

프란치스코 교황성하께서 오는 8월16일 서울에서 124위 한국 순교자 시복식을 거행하심에 맞추어 북미주 사제협의회에서 '교황님과 함께하는 한국성지순례(Pilgrimage with Pope

- ◆ '백삼위 한인성당 장학회' 장학금신청 마감했습니다.

올해로 3회를 맞은 2014년-15년도 '백삼위 한인성당 장학금' 신청이 오늘 주일로 연장마감됐으며 장학회의 심사에 들어갑니다. 심사대상은 12학년~대학재학생(1~3학년)으로 본당 등록신자 및 등록신자의 자녀로 교회활동 및 봉사에 참여하며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입니다.

 - 장학금 지급 : 8월10일 예정, 한 학생당 \$2,000

Francis in Korea)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참가단을 모집합니다. 한국어권(5박6일), 영어권(9박10일) 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 출발(한국어권 8월11일, 영어권 8월10일)은 함께 하고 돌아오는 날은 자유롭게 결정.
- 한국성지순례 : 8월13일~14일
- 시복식 : 8월16일 서울 광화문 광장
- 자세한 내용은 사무실에 비치된 참가신청 안내서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 주일학교 미사전례 독서자 뽑습니다.
 - 대상 : 주일학교 학생으로 현재 6~12학년
 - 모집마감 : 오늘주일(8일)
 - 문의 : 이진원 투시아 초등부 교무주임 ☎(310)744-8895
- ◆ 본당 수녀님 북미주 한인수도자 피정 참석
 - 일정 : 6월8일~6월26일
 - 장소 : 보스턴 피정의 집
 - 이번 피정이 특별히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 ◆ 본당 신임 사무장 공개 모집
 - 현 사무장이 오는 6월말까지 소임이 끝남에따라 신임 사무장을 공개 모집합니다. 관심있는 분은 이력서와 본인 소개서를 본당 신부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6월8일(주일) : 토런스 남1,2반(무밥 \$3)
*주일학교(1,2학년 칠리도그)
 - 6월15일(주일) : 토런스 북1반(우거지국 \$3)
* 주일학교(킨더가튼 김치찌개)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숙경 김광자 김상근 김선재 김영경 김옥찬 김우용 김정웅 김정희 김종렬 김찬구 김철민 김효진 문항엽 박씨니 박인식 박정희 박종렬 방정복 석순영 송영미 신경훈 양영관 엄정자 오일순 유영균 윤석구 윤화경 이영석 이영희 전정일 전정자 정훈모 조준제 주대중 주영석 최기남 최태훈 최희태 한장환 이크리스 영희가보라 송마이클	성전헌금	강숙경 김광자 김선재 김우용 김정희 김찬구 김철민 김효진 문항엽 박씨니 박인식 박정희 방정복 석순영 신경훈 양영관 엄정자 유영균 윤화경 이영희 정훈모 조준제 주대중 최기남 최태훈 한장환 이크리스 영희가보라 송마이클
	합계 : \$5,230		합계 : \$3,270
주일미사 헌금 : \$3,041	2차헌금 : \$688	감사헌금 : \$700(성낙호 윤석구 이크리스 익명)	

공지사항

◆ 주일학교 교리교사 모집

- 대상 : 초등학교 교사
- 자격 : 영어 가능한 남녀 교우
- 문의 : 이인석 비오 주일학교 교장 ☎(213)258-8665

◆ 2014-2015학년도 주일학교 등록 접수

- 대상 : 유치원~12학년
- 1차접수 : 6월15일(주일) 방학전까지 마감
- 등록비 : 첫째 \$100, 둘째 \$80, 셋째 \$60, 넷째 무료
- 2차접수 : 9월7일부터 등록비 인상(\$160, \$140, \$120)
- 자모회비 : \$50(가정당)

◆ 주일학교 서머캠프

- 일정 : 6월27일(금)~29일(주일)
- 장소 : Oak Glen 크리스천 컨퍼런스센터(www.oakglen.org)
- 대상 : 3~12학년(선착순 50명)
- 참가비 : \$50(no refund)
- 문의 : 박윤희 스테파니아 행사담당 교사 ☎(310)613-9116

◆ 한국어말하기대회에 이연준 에스터 우수상...축하합니다.

지난 5월31일 LA 한국교육원에서 열린 제30회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 백삼위한국학교에서 모두 8명이 참가, 이중 이연준 에스터(7학년)가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축하합니다!

◆ 2014-2015학년도 백삼위한국학교 등록 접수중

- 등록비 : 첫째 \$200, 둘째 \$190, 셋째 : \$180, 넷째 : 무료 (6월15일전까지 등록하면 20% 할인 혜택), SAT반 \$200
- 문의 : 최 바르톨로메오 한국학교교장 ☎(213)700-9399

“새 신자 환영합니다.”

소공동체 6월 반모임

소공동체 부 장 김명재 아가다 (310)866-8778
차 장 이희경 크리스티나 박은혜 클라우디아
차 장 김희연 루시아 정병욱 올리아

구역/장	반	반 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박달레나 539-3377	1	이순자 비비안나 213-675-0498	김정희 올리아 213-675-0498 6/14(토) 오후 6시 성당
	2	김찬구 요한 701-6343	장수영 패트릭 701-6343 6/14(토) 오후 7시 성당
	3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6/13(금) 오후 8시
토런스 서 엄해은 도로테아 200-0512	1	강인모테오도시오 780-3258	임순 테레사 780-3258 6/14(토) 오후 6시
	2	심옥방 미카엘라 999-5808	심옥방 미카엘라 999-5808 6/15(주일) 플레이스리타캐년
	3	정광미 프란체스카 617-1132	방미숙 마리아 617-1132 6/13(금) 오전 10시30분
토런스 남 최옥희 테레사 508-2912	1	박문주 엘리사벳 968-8280	박문주 엘리사벳 968-8280 6/8(주일) 오후 2시 성당천교장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주이자 테레사 634-6923 6/13(금) 오전 10시30분 성당
	3	조정선 마리아 945-8204	이상철 크리스토퍼 818-6902 6/15(주일) 오후 5시
토런스 북 조화숙 안젤라 213 272-8393	1	정병욱 올리아 404-1607	최미영 클라라 404-1607 6/9(월) 오후 7시
	2	1반과 같음	“
하버 카슨 윤희동 안토니오 365-7871	1/2	조소영 수산나 804-7645	유명련 마리아 365-0660 6/14(토) 오후 7시
	3	1,2반과 같음	“
P. V. 남정희 베네딕타 384-3289	1	박종선 리비나 213-700-6983	이갑열 테레사 533-7718 6/13(금) 오후 6시30분
	2	금유미 크리스티아 482-9108	금유미 크리스티아 482-9108
	3	정종미 클라라 818-1799	정치영 프란치스코 818-1799 6/14(토) 오후 7시
	4	이귀란 아네스 617-3568	강숙경 도미니카 617-3568 6/3(화) 오전 10시 30분

이번 주 단체 모임

제단체 모임의 날	
-----------	--

다음주 단체모임

사목회장단 모임	오후 1시
----------	-------

남가주 소식

◆ 남가주 성령채신 봉사회 행사 안내

- KYCR Reunion 찬양의 밤 : 6월14일(토) 오후 7시30분
- 장소 : 성라파엘 성당
- 초대신부님 : 정현철 알렉스, 이상훈 요한, 정브라이언
- 문의 : 김모니카 ☎(310)999-1142

◆ 가톨릭 예수회 성경대학 7학기

- 주제 : '요한복음서를 통해서 본 예수 생애 2'
- 강사 : 송봉모 토마스 신부(예수회 한국관구)
- 일시 : 6월27,28,29일(금,토,일) 오후 6시30분
- 장소 : LA 성 아그네스 성당 회관(버몬트 + 아담스)
- 수강료 : \$50 ☎(323)731-4433

◆ 제2회 학생 성화미술대회 (남가주한인가톨릭미술가회)

- 주제 : 주님은 나의 목자
- 대상 : 유치부, 초,중,고등부 학생
- 마감 : 6월1일~30일 * 보낼곳 : 가톨릭신문사
- 문의 : 가톨릭미술가회 ☎(818)667-2877

함께함의 아름다움

인생에서 어떤 일은 행복한 추억으로 남고, 또 어떤 일은 떠올리기만 해도 고통스럽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세월호 참사는 함께 살 줄 모르는 어른들이 어린 세대에게 영원한 빛을 진 아픈 사건입니다. 즐거운 수학여행은 그렇게 비통하게 역사의 뒤로 사라졌습니다. 총체적 이기심이 원인인 그 지옥의 현장에서 자신을 희생한 의로운 선생님의 모범은 밤을 밝히는 빛입니다.

끝까지 학생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생명을 구하다가 돌아가신 故 남윤철(아우구스티노) 선생님의 장례 미사에서 부모님은 이렇게 고별인사를 하셨는지요. "사랑한다, 내 아들이. 잘 가라, 장하고 훌륭한 내 자식." 오열하는 아버지는 이 칭찬으로 아들을 떠나보냈고, 어머니는 "내 아들, 의롭게 갔으니까 그걸로 됐다."며 고통을 끌어안았습니다. 선생님 가족의 인간애에서 '함께함'이 얼마나 아름다운 복음정신인지 깊이 깨닫습니다. 인정에 큰 가뭄이 든 이 시대에 선생님 가족이 보여준 연대성은 마음을 달래주는 큰 위로입니다.

'함께' 연대하는 공동체

중풍으로 마비된 이를 몇 사람이 들것에 싣고 예수님께 데리고 간 이야기가 공관복음서에 나옵니다.(마르 2,1-12; 마태 9,1-8; 루카 5,17-26)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온 사람이 너무 많아 병자를 그분 앞으로 데려갈 수 없게되자, 지붕을 벗기고 구멍을 내어 예수님 앞으로 내려보낸 어려운 상황이 묘사됩니다.

사람들의 이 대담한 행동은 예수님께 대한 그들의 믿음이 절대적임을 말해줍니다. 주님과 만남이 그토록 절실했기에 장애물 앞에서 체념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방법을 찾습니다. 여기에서 공동체의 연대성이 눈에 띕니다. 그들은 중풍병자의 고통을 자신들의 고통으로 느끼며 그의 치유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함께' 아파하며 당신께 의탁하는 공동체의 마음을 예수님은 매우 소중한 가치로 여기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마르 2,5)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신 표징으로 그의 병을 낫게 하신 계기는, 바로 고통받는 형제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희망하는 공동체의 연대의식입니다.

'함께' 누리는 기쁨

함께하는 능력의 원천은 주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끝까지 희망하고 연대하는 믿음의 공동체는 중풍병자가 절망하지 않고 고통을 견디어 내게 하는 힘입니다. 타인의 도움없는 홀로 몸을 가눌 수 없는 이에게 공동체는 손을 내밀어 온층에 다가갈 수 있는 문을 열어줍니다. 예수님은 "일어나 들것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거라."(마르 2,11)라는 말씀으로 치유를 해주십니다.

이 일로 사람들은 놀라고 하느님을 찬양합니다. 곧 한 사람에게 주어진 은총은 온 공동체가 함께 누리는 모두를 위한

기쁨입니다.

<땅위에서 드리는 기도사랑의 하느님, 탐욕으로 침침해진 우리의 눈을 맑게 씻어 주시어 이웃과 더불어 사는 연대성의 아름다움에 눈을 뜨게 하소서,>

◆민남현 수녀 / 성마오로딸수도회

교리시간이나 강론에서는 주님께서는 인간의 나약함을 알고 계심으로 모든죄를 기꺼이 용서해 주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를 짓더라도 죄의식을 갖지 않고 기쁘게 살아가는 편이 훨씬 복음적이지 않습니까?

물론 자비로우신 주님께서는 우리 죄를 언제나 무한히 용서하십니다. 우리의 나약함을 아시기에 수없이 용서를 베풀어주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자비에 기대어 죄를 합리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은 스스로의 삶을 복음적으로 변화시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 모두가 기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기쁨은 결코 죄에 둔감한 마음이나 멋대로 행동하는 방종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믿음인은 주님께서 거꾸 용서해 주실 것만 기대하는 뻔뻔한 마음을 삼가게 됩니다. 이런 행위가 주님을 얼마나 아프게 할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기쁨만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당신의 자비에 의탁하는 영혼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쏟게 됩니다. 당신의 품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혼신을 다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를 위한 노력을 그분께서는 사랑으로 즐겨 받으십니다. 죄에는 주님께서 선물하신 생명을 죽이는 힘이 있습니다. 죄는 사랑하는 예수님과 단절을 초래합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주님 자비에 대한 사랑의 응답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장재봉 신부 / 부산교구 활천성당 주임

- 배신 -

믿는다는 것은 마음을 주는 일.

마음을 주고받는 관계가 끝난다는 건

사람을 잃는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여 배신이 아픈 건 신의를 저버려서가 아닙니다.

배신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까닭입니다.

사람을 잃는 일.

가장 가까운 사람을 잃고도

관찰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영 아녜스 / 수필가